서석로 인근에서 20년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

는 A(70)씨는 "주차선이 그어진 이후 1일 방문 차

량수가 줄었다"며 "편도 2차로에서 무인주차장이

1개 차로를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주말이면 교통 정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광주 도심 무인주차기 주차난 해법될까

동구, 광주 첫 도입…4개월 시범운영 서석로 웨딩거리 165m 구간 28면 1시간 무료…추가 15분마다 2000원 불법 주정차 해소·상권 활성화 '기대'

광주시 동구 서석로 웨딩의 거리에 전자기기로 주차 요금을 자동 정산하는 노상 무인주차장이 운영된다.

자동정산 방식 무인주차장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운용되는 방식으로, 장시간 주·정차 차량 을 줄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시 동구가 도입했다.

동구는 "웨딩의 거리 입주업체들과 협의해 서석 로 일대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 조만간 시범 운 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2억5000만원을 투입, 옛 그랜드호 텔 인근부터 천변 방향 165m 구간(편도 2차로)에 양쪽 28면 규모 노상 무인주차장을 조성했다. 무인주차요금 정산기기는 2면당 1대씩 모두 14대가 설치되다.

세종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주차시스템은 적은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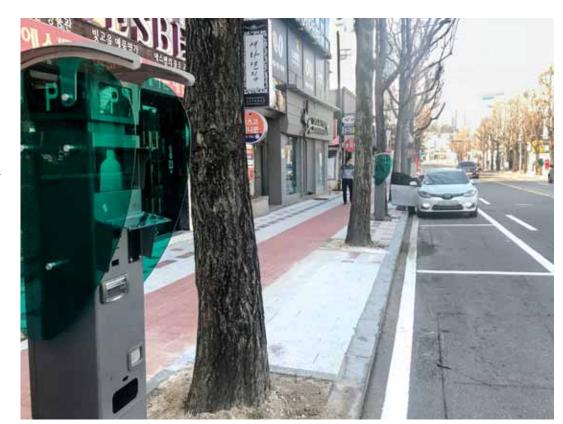
운전자에게 최소 1시간 요금부터 받는 일반 주차 장과 달리, 매 15분 기준으로 요금이 매겨진다.

동구는 시민들이 적은 요금으로 단시간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상 무인주차장은 고객이 주차하면 요금정산기 기가 자동으로 차량 넘버를 인식해 촬영한다. 운전 자는 기기 화면에 나온 본인 차량 사진이나 주차면 번호를 선택한 뒤 주차 요금 확인 후 신용카드 등으 로 결제하면 된다. 동구 주차장 조례에 따라 경형 자 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요금이 감면된다.

현재 기기 설치는 끝난 상태로 서버 연결, 무인단 속카메라 조정 등을 남겨놓은 상태다. 동구는 조례 개정을 할 때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요금, 최대 주차시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범운영기간 주차요금(안)은 1시간까지 무료로 하고 이후 15분마다 2000원씩 책정한다. 1일 최대 요금은 일반 주차장과 비슷한 3만원이다. 운영시간



2일 광주시 동구 서석로 웨딩의 거리 일대에 무인주차정산기기가 설치돼있다. 동구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4개월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은 월~금요일 오전 8시~밤 9시, 토~일요일 오후 2시~밤 9시다.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과 공휴일, 토~일요일 오전 8시~오후 2시는 무료다. 이외 구역은 주정차단속 CC(폐쇄회로)-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동구는 무인주차장이 현재 침체돼 있는 웨딩의 거리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무인주차장은 웨딩업체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잠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외 구역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며 "1시간 이후부터는 일반 주차장보다 요금을더 비싸게 책정해 단시간 주차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중·소형 주차장 사업자들은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노상무인주차장이 되레 차 량 정체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선대 이사회, 가동 2개월만에 '삐걱'

3명 사임 의사…이달말 교육부 사분위서 사퇴·추가선임 여부 결정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임시이사회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사진 구성 2개월 여만에 일부 이사가 사임하거나 의사를 밝혀 9명 정원인 이사회에 이사 4명만이 남게될 처지에 놓였다.

2일 조선대 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2018년도 3월 정기 이사회에서 강신중(변호사) 이사가 사임 의사를 피력했다. 이용복(전남대 교수) 이사도 강 이사와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호(전 광주시행정부시장) 이사도 전북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사직을 맡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이사는 박관석 이사장의 일방적 이사회 운영 방식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사직 수행에 의미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이사는 김 모 군사학과 교수 임용 취소 결정

과정에서 표결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며 지난 2월 이사회 회의록 서명을 거부했다.

이들 3명이 사퇴하면 정원(9명) 과반에도 못 미치는 4명만 남아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하순 조선대 임시이사 9명을 선임했으나 1명이 고사하고 이후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임해현재 7명만 남은 상태다.

조선대 법인 제2기 이사회는 지난해 2월 25일 임기가 만료돼 8개월 동안 이사회 부존재 상태가 이어졌다. 조선대는 임시이사 파견을 교육부에 촉구,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임시이사회를 꾸리기 로 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사들의 사퇴와 추가선임 여부는 이달 하순께 열리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이와 함께 배우는 지진 대피·심폐소생술

광주시,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안전체험관 확대 운영

광주시는 이달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주 토요 일에 안전체험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체험관은 주중(월~금요일) 하루 3 회(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운영됐다.

하지만 평일에 맞벌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체험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데다 최근 경주 지진, 제천 화재사고 등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에 호응하고자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광주시청사 1층에 자리 잡은 안전체험관은 지진대피, 심폐소생술, 안전벨트, 화재진압 등 9개의 체험 행사가 마련돼 호응이 높다. 이용 대상은 5~13세다. 희망자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사전 예약하면 무료로 체험할수있다. /오광록기자 kroh@

역대 가장 따뜻했던 3월

지구온난화 가속…광주·전남 평균 8.9도·강수량 164.5mm

지난달 광주·전남의 3월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수 량도 평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량도 평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3월 한 달간 광주의 평 균기온은 10도로, 1939년 이후 78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다"고 2일 밝혔다. 기상청이 발표한 '3월 기상특성'을 살펴보면 광 주·전남의 3월 평균 기온은 8.9도로 전국적으로 기 상관측이 실시된 1973년 이후 가장 기온이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도 14.6도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달 광주·전남의 강수량도 164.5mm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시베리아 동부 상층에 기압골이 위치

한 탓에 찬 공기를 동반한 북서기류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못했다. 여기에 이동성 고기압과 남서쪽 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의 유입되고 낮 동안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3월이 됐다는 게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효은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일본 남동쪽 해상의 고기압과 우리나라 남서쪽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돼 과거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매년 봄철 광주·전남의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때 이른 봄 더위도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

